수업 :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

작품명 : AGONY

결국 세상은 누군가들의 사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. 대개 그 사정이란 순탄하기 보다는, 안타깝거나 고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. 세상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라며, 세 등장인물의 사정을 만화로 그려냈습니다. 제목이 'AGONY'인 만큼, 세 인물은 자신만의 고충을 안고 살아갑니다. 연'AGONY'는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각자의 트라우마를 포용하고 인정하게 되면서, 그들이 내면의 고충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, 그리고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삐뚤빼뚤 성장해 나가는지를 조명합니다. 세 인물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성격적, 행동적 양상들은 누구나 어느정도씩은 지니고 있을 것이며, 등장인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. 그들의 성장과정이 누군가의 치유와 위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